

남성복 재킷의 선호 여유량과 맞음새에 관한 연구

강여선 · 최혜선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Characteristics to ensure Optimum Ease in Men's Business Jackets

Yeosun Kang · Hei-Sun Choi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4. 5. 11.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ange of variation for commonly accepted ease in a business jacket and thus to find solutions to the problem of fit and ease in ready-to-wear jackets. This study was based on anthropometric measurements, pattern measurements, which were used to calculate ease amount according to each jacket part. The survey subjects were 493 males, between 25 to 59 years old, buying a jacket at stores in Seoul. In the results, the aesthetic purpose of a business jacket(custom-fit jacket) was clearly observed by the means of controlling the ease amount at chest, waist and hip. The ease at chest and waist(ready-to-wear) clearly revealed a difference among prototypes.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by the regular drops and the similar length-width proportions between sizes in ready-to-wear Jackets. Therefore, customers with varying body drop differences, who had to choose a homogeneous jacket drop, experienced too much ease at the Waist and Hip compared with custom-fit customers. In addition, the height could be an integral factor to affect the ease of jacket length and sleeve length. The ease at these par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height groups and showed negative relationships.

Key words: Ease, Custom-fit jacket, Ready-to wear jacket; 여유량, 정장재킷, 기성복

I. 서 론

2002년 의류 소비 실태 조사(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2)에 따르면 전체 의류시장 중 남성복은 31.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장(suit)은 22.0%로 가장 비중이 높은 복종이었다. 신사복은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낼(김구자, 정명숙, 2001) 뿐 아니라 체형을 잘 드러내기 때문에 디자인, 색상, 스타일 등의 다른 요소보다 맞음새가 한층 중시된다(Hogge et al., 1988). 한편, 신사복은 오랜 기간 맞춤 시스템에 의해 발달하였으나 점차로 대량 생산화 및 자동화가 발전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이 발달하였다. 맞춤복은 소비자들의 신체적 특성 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도까지 고려하여 적합한

여유량과 맞음새를 제공함으로써 의복 착용의 근본 목적인 신체의 "Normal"화와 표준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는 생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성복은 맞춤복과 달리 표준체형을 모델로 크기의 증감에 따라 치수를 설정하기 때문에 표준형에서 벗어난 체형을 가진 소비자를 커버할 수 없고(김현아, 1999) 이러한 제한된 치수 체계는 치수 및 맞음새 불만족의 원인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의류 업체들은 생산 사이즈 증가의 부담 없이 다양한 소비자 체형 및 선호도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 시스템의 장점을 적용한 대량 개별화(Mass Customization)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박찬욱, 1996). 그러나 맞춤형 기성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맞음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Ashdown, Delong, 1995) 일반 기성복

이 제공하는 맞음새와 차별화된 맞음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류업체 관련자 및 연구자들은 맞음새를 결정하는 여유량의 실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여유량' 특성 및 이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자 기성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성복 치수실태를 통해 치수 적합성과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김희영, 1998), 남자 체형을 정면체형과 측면체형으로(곽연신, 2002) 분류한 후 체형 연구를 바탕으로 신사복 치수규격을 제안한 연구(김구자, 1991), 그리고 남성의 신체 만족도와 의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안성원, 2001) 등이 있으나 여유량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 자신이 재킷 착용에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유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동시에 각 부위별 여유량을 체형별, 연령별로 분석하여 기성 재킷의 맞음새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인체 특성과 기성복 치수체계

성인 남자 체형은 여성에 비해 키가 5~10cm크고, 골격이 크며, 근육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고, 어깨너비가 넓고, 엉덩이너비는 좁다. 체지방은 몸 전체에 고루 분포하기 보다 주로 상반신에 두껍게 축적되며 특히, 엉덩이보다는 배부분에 축적된다(남윤자, 이형숙, 1995). 연령에 따른 신체 변화를 살펴보면 성장기에는 주로 길이와 높이가 변화하나 성장이 정지된 이후에는 구간부 즉, 허리둘레와 배둘레 등의 둘레부위가 주로 증가하며 이런 변화는 2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유신정, 1991). 김구자(1991)는 19~54세의 성인 남성의 체형에 대해 19~27세, 28~35세, 36~43세, 44세 이상의 4 연령집단 간에 유의적 체형 변화를 보고 하였으며 정재은(2000)도 19~35세와 36~54세 연령층은 유의적으로 다르며 연령 증가에 따라 허리부분의 지방층 침착으로 인하여 H형과 A형으로 이행해 간다고 하였다. 즉, 연령 증가에 따라 높이와 너비는 감소하는 반면 둘레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Workman, 1991) 이런 변화는 20대 후반부터 시작되며 30대 후반을 기점으로 청년과 중년으로 나뉜다. 특히 허리둘레의 증가가 현저하여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 간의 차이가 점차 작아진다.

체형형태는 정면형태와 측면형태로 구분되며 정면 형태는 동체의 중요부위의 크기의 차, 즉 드롭치에 의해 결정되며 의복 치수와 실루엣의 바탕이 된다. 측면 형태는 의복 치수나 실루엣보다는 착용상태의 측면 맞음새, 즉 맞음새의 깔꿈함, 군주름, 앞뒤의 들림이나 처짐에 영향을 미친다(中澤念, 1999). 따라서 의복 치수 체계는 형태 특성에 따라 체형을 분류한 후, 각 체형 내에서 비례적으로 크기를 축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이순원, 최유경, 1997). 실제로 우리나라의 KS 규격 뿐 아니라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 미국의 CS와 PS, 일본의 JIS 등의 의복 치수 규격들도 먼저 체형을 분류하고 각 체형 내에서 신체크기에 따라 의복 치수를 규정하고 있다(정재은, 2000).

우리나라 정장용 신사복 상의의 치수 체계는 KS 남성복 치수 규격(KS K 0050, 1999)에 따라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순으로 표기하고 있다. 치수 간격은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및 허리둘레는 2cm, 키는 5cm 간격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2cm 간격은 현행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3cm 치수 간격과 차이가 있어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KS 규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S 신사복 상의 호칭의 체형 구분은 착용 대상자의 드롭치(가슴둘레-허리둘레)에 의해 마른체형(YY, 22~28cm), 역삼각 체형(Y, 18~22cm), 보통체형(A, 14~18cm), 허리가 굽은 체형(B, 10~14cm), 그리고 배가 나온 체형(BB, 6~10cm)으로 구분하였으며 키에 따라 Petite(155~165cm), Regular(165~175cm), Tall(175~185cm)로 재 구분하여 총 15개 체형으로 구분한다.

2. 맞음새와 여유량

여유량은 주로 둘레부위에 필요한 것으로 활동량을 위해 추가되는 여분, 즉 제품치수와 신체치수 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심규남 외, 2000). 인체와 의복 사이에 존재하는 여유량은 인체의 체형적 정보와 더불어 맞음새를 결정하는 기본 요인으로 개개인에 따라, 부위에 따라(Ashdown, Delong, 1995) 적정 여유량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여유량은 심미성을 위한 가시적 치수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맞춤의 경우는 의복 제작자의 기술에 의해 실제 인체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기 보다는 '표준(normal)'에 가까운 형태를 표현하게 된다(Workman, Lentz, 2000).

남자 재킷 제도법에 따른 재킷 부위별 여유량을 살펴보면 <표 1> 가슴둘레 여유량은 대체로 B/2에 9.5~12.5cm이며 허리둘레 여유량은 가슴둘레에서 일정 다트를 제외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허리 다트 분량은 허리/2에서 5.5~9cm로 다양하나 대부분 5~6cm사이이며 뒤중심, 앞허리다트, 사이드 패널(side panel)로 분산된다. 따라서, 각 다트 폭은 1-2cm로 가슴에서 허리를 지나 도련에 이르는 선이 직선적인 실루엣을 형성하게 된다. 그 외에 도련 둘레, 소매둘레, 어깨 등도 실제 신체치수 대신 대표치수에 의해 제도되기 때문에 제도법을 통해 각 부위의 여유량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남성용 재킷(suit)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장용 및 단품용 기본 스타일(2버튼과

3버튼)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성 재킷의 치수 현황과 맞음새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성 재킷 치수를 조사하였으며 여유량을 분석하기 위해 매장에서 재킷을 구입하는 25세~59세의 남자 493명을 대상으로 신체 및 재킷치수를 측정하였다.

1. 재킷 치수 조사

재킷 치수 조사는 년 매출 100억 이상이고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 중 정장 브랜드 21개와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 2> 가슴둘레, 허리둘레 및 키 호칭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킷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드롭치를 KS 규격의 체형과 비교하였으며 업체 생산 재킷 치수의 소비자 커버율을 산출하기 위해 97국민표준체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3cm, 키는 5cm 간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재킷 제도 필요 치수 항목과 가슴둘레 여유량

연구자	제도 필요 항목	가슴둘레 제도
이은진 (2003)	등길이, 어깨길이, 소매길이, 가슴둘레	B/2+10
김진선 (2001)	총길이, 등길이, 앞길이, 어깨끝점사이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앞폭, 뒤폭, 소매길이, 손목둘레	B×1.1
곽영철 (2001)	키, 등길이, 소매길이, 어깨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손목둘레	B/2 + 10
이상희 (2001)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2/5B-0.5+1+0.8) +(B/5+0.5+5.5)+(2/5B+1.8)
유경진 (2001)	키, 등길이, 소매길이, 가슴둘레, 밑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앞폭, 뒤폭	B/2+15
정재은 (2000)	등길이, 진동깊이, 엉덩이길이, 가슴둘레, 가슴너비, 겨드랑이너비, 등너비	B+(9.5~12.5)
남정은 (1999)	키, 소매길이, 가슴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B/8+재킷길이/10+3) +(B/10+6.5)+(B/4+3)
이정임 (1998)	키, 등길이, 소매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손목둘레	B /2+ (11~25)
이형수, 남윤자 (1995)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소매길이	(1/5B-1)+(3~3.5)+(B/10+1+4.5)+ (1/5B+2)+(2~2.5)
문화식 (1984)	등길이, 소매길이,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어깨너비, 앞폭	B/2+(8~10)

<표 2> 재킷 치수 체계 조사 업체

스타일	브랜드 명	계
신사정장	갤럭시, 나나리찌, 다반, 로가디스, 리얼리스트, 마에스트로, 맨스터, 바쏘, 빌리디안 클래식, 소르첸테, 인디안 옴므, 잔파엘, 지방시, 제누스, 킨록 앤더슨, 칼립소, 캠브리지 멤버스, 트루젠, 파코라반, 파크랜드, 피에르가르맹	21 업체
캐릭터 캐주얼	DKNY, 라스트콜, 레노마, 레드옥스, 스파소, 씨피킵퍼니, 어바웃, 엠비오, 위모, 이지오 꿀에오네, 인디안 모드, 인터메조, 제스, 지오지아, 지이크, 코모도, 타임옴므, 파시스, 파코라반 캐주얼, 킨록 2	20 업체
Total		41 업체

2. 재킷 여유량 조사

조사 대상자는 맞춤 재킷 소비자 126명, 기성 재킷 소비자 367명이었으며 기성 재킷 소비자는 신사 정장 179명, 캐릭터(character) 정장 188명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키는 174.2cm(163~187cm), 평균 몸무게는 73.0kg(54~98kg)이었다. 조사 지역은 맞춤 재킷은 명동과 압구정동이었으며 기성 재킷은 강남과 강북의 백화점내의 신사 정장 8개 업체와 캐릭터

정장 7개 업체였다. 시기는 2003년 2월부터 5월까지로 춘추용 재킷 구입 시기였다.

계측 항목<표 3>은 KS 규격의 측정 항목과 업체의 그레이딩 포인트 및 완성 치수 확인을 위한 기준 부위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단, 허리둘레는 남성의 신체적 특성상 잘록하게 들어간 안쪽 부위가 뚜렷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배가 나올수록 잘록하게 들어간 부위가 점점 위로 올라감에 따라 재킷의 허리둘레와 상이해지며, 특히 셔츠를 착용한 상태에서 식별이 거

<표 3> 재킷의 여유량 파악을 위한 신체 계측 항목

측정 항목		국민표준체위조사 측정방법
너비 항목	어깨너비	양 어깨끝점에서 뒷목점을 지나는 어깨끝점 사이길이를 어깨너비로 명명
	뒤 품	어깨 양끝점에서 겨드랑점을 잇는 선의 가운데점 사이의 길이
둘레 항목	가슴둘레	젖꼭지점을 지나는 수평둘레
	허리둘레*	배꼽 바로 윗부분을 기준으로 한 수평둘레
	엉덩이둘레**	최대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상태의 겨드랑점 밑 위팔둘레
길이 항목	진동길이	목뒤점에서 겨드랑점 연장선까지의 길이
	재킷길이***	목뒤높이의 이등분길이에 1cm를 더한 길이
	소매길이	어깨끝점으로부터 손목마개점과 다섯째 손가락 시작점의 중간까지의 길이
키		피험자가 응답한 치수
몸무게		피험자가 응답한 치수

* 국민표준체위조사의 허리둘레가 아니라 배꼽 기준 허리둘레 치수임

** 엉덩이둘레는 배둘레가 포함된 최대 외포둘레임

*** 직접계측길이가 아니라 맞춤에서 재킷길이를 계산하는 방식(목뒤높이/2+1cm)에 의한 길이

<표 4> 업체 재킷 패턴에서 살펴본 허리둘레 변화량

(단위 : cm)

종류	위치	2cm 아래		1cm 아래		허리위치			1cm 위		2cm 위	
		허리둘레	차이	허리둘레	차이	허리둘레	허리둘레	차이	허리둘레	차이		
A 패턴		105.6	2.0	104.6	1.0	103.6	104.4	0.8	104.4	0.8		
C 패턴		105.2	0.6	104.6	0.0	104.6	104.6	0.0	105.0	0.4		
E 패턴		100.8	1.2	100.2	0.6	99.6	100.0	0.4	100.4	0.8		
G 패턴		102.6	1.6	101.8	0.8	101.0	100.6	-0.4	100.4	-0.6		
I 패턴		103.8	2.0	102.2	0.4	101.8	102.4	0.6	103.0	1.2		
K 패턴		103.8	0.8	103.0	0.0	103.0	103.6	0.6	103.8	0.8		
L 패턴		101.0	2.0	99.8	0.8	99.0	98.4	-0.6	98.0	-1.0		
M 패턴		100.2	2.2	99.2	1.2	98.0	97.4	-0.6	96.8	-1.2		
O 패턴		104.6	2.4	103.2	1.0	102.2	101.4	-0.8	101.0	-1.2		
R 패턴		105.0	1.0	104.4	0.4	104.0	103.6	-0.4	104.6	0.6		
S 패턴		101.6	1.6	100.8	0.8	100.0	99.4	-0.6	99.4	-0.6		
T 패턴		102.6	1.2	102.0	0.6	101.4	101.0	-0.4	100.6	-0.8		
Z 패턴		103.0	2.0	102.0	1.0	101.0	100.6	-0.4	101.4	0.4		
평균		103.0	1.4	102.2	0.6	101.6	102.0	-0.6	102.4	0.8		

*차이 = 허리선 위 또는 아래의 허리둘레 치수 - 허리선 위치의 허리둘레 치수

의 불가능하고, 남성용 재킷의 실루엣 특성상 허리기준선으로부터 1-2cm 떨어져도 치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표 4> 배꼽 제일 위를 허리둘레 측정의 기준으로 하였다. 모든 계측은 재킷 착용의 보편적 상황에 따라 바지에 셔츠 또는 티셔츠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하였으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2회 반복 측정하였다.

재킷 종류는 남자 정장용 기본 재킷 스타일(통사이버 재킷) 중 뒤트임이 없고 앞단추(button)가 2개 또는 3개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소재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2002)의 보고서에 따라 가장 흔히 사용되는 모 100%과 혼방(모 70% 이상)으로 하였다.

재킷 여유량 산출은 동일한 부위의 신체치수와 패턴치수를 측정한 후 소재 및 부자재의 두께를 측정(KS K 0506-2001)하여 부위별 둘레치수 감소량을 반영하였다. 참고로 걸감의 두께는 0.26~0.42mm, 안감은 0.11mm, 모심은 0.50mm, 주머니 감은 0.32mm로 모두 0.5mm 이하였으나 재킷 앞판의 형태를 형성하기 위한 작심은 2.14~2.16mm이었다. 샘플 치수(100)를 기준으로 소재 두께에 의해 계산된 재킷 부위별 둘레치수 감소량은, 가슴둘레가 앞판 0.935cm, 뒤판 0.150cm, 전체 1.085cm로 가장 많았으며 엉덩이둘레는 앞판 0.450cm, 뒤판 0.140cm, 전체 0.590cm였으며 허리둘레는 앞판 0.298cm, 뒤판 0.140cm, 전체 0.438cm였다. 팔둘레는 0.14cm 감소하였다. 한편, 수선을 의뢰한 경우는 부위별로 수선 분량을 반영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11.0을 이용하였고, ANOVA를 통해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 구분은 35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체형 구분은 KS 규격의 드롭치 체형에 따라왔고 신장은 5cm 간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맞춤 재킷 소비자와 기성 재킷 소비자들을 비교함으로써 기성 재킷 치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인 집단은 DUNCAN 사후검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1. 재킷 치수 분석

1) 재킷 치수 현황 및 분포

업체별로 생산되는 재킷 호칭 개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캐릭터 정장은 5개 이하였으며 신사 정장은

11개~15개 호칭을 생산하는 업체가 52.4%(11개)로 가장 많았고 16개~20개를 생산하는 업체가 23.8%(5개)로 다음이었다.

재킷의 치수 표시 항목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에 대한 재킷 호칭간 편차를 살펴보면 키의 경우는 KS 규격에서 제시한 5cm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경우는 2cm 간격을 사용하는 업체는 전혀 없었고 신사 정장 브랜드들은 3cm 편차를, 캐릭터 캐주얼 브랜드에서는 5cm(75%) 편차나 3cm(25%) 편차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킷 호칭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표 5> 업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재킷 호칭은(가슴둘레-허리둘레-키) 97-85-170, 100-88-170, 100-88-175와 103-91-175로 키호칭 170과 175에 해당되는 호칭들이었다. 가슴둘레 호칭은 97(23.06%)에 해당하는 호칭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0(20.63%), 103(17.48%), 106(11.41%), 94(9.95%) 순이었다. 가슴둘레 호칭과 키 호칭의 이원 빈도 분포를 살펴보면 키 165와 170의 경우 가슴둘레 94, 97, 100이 많았고 키 175는 97, 100, 103이 많았으며 키 180은 100, 103, 106이 많고, 키 185는 109와 112 호칭이 많았다. 따라서 기성 재킷 호칭은 키 호칭이 커질수록 가슴둘레 호칭도 함께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재킷 치수 체계가 특정한 키-가슴둘레의 비례를 바탕으로 설정되었음을 나타낸다. 허리둘레는 88(22.57%)에 해당하는 호칭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85(17.48%), 91(16.99%) 순이었다. 키에 따라 구분해보면 키 165에서는 82, 85, 88 호칭이 많았고, 키 170과 175에서는 85, 88, 91 호칭이, 키 180에서는 88, 91, 94 호칭이 많아 역시 특정 키-허리둘레 치수가 비례적으로 증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성 재킷 치수 체계는 특정 형태의 신체 치수를 비례적으로 증감하여 구성된 치수체계에 소비자들의 다양한 길이-너비 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또는 너비의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 요인이 있다고 하겠다.

기성 재킷 호칭들의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드롭치를 분석하면 전체 범위는 9~21cm로 KS 규격의 6~28cm에 비해 약간 좁으나 비교적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75.0%가 드롭치 12cm(허리가 굵은 체형(B))에 집중되어 있고 15.5%와 8.0%만이 드롭치 15cm(보통 체형(A))와 9cm(배가 나온 체형(BB))를 위한 호칭이었으며 역삼각체형(Y)과 마른체형(YY)에 해당하는 재킷 호칭은 각각 1.0%와 0.5% 뿐이었다.

<표 5> 기성 재킷 치수의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호칭

(단위 : 명/%)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Total
		79	82	85	88	91	94	97	100	
165	91	5(1.21)								5(1.21)
	94	4(0.97)	17(4.13)	1(0.24)						22(5.34)
	97	2(0.49)	7(1.70)	15(3.64)	7(1.70)					31(7.52)
	100			1(0.24)	11(2.67)	1(0.24)				13(3.16)
	103					4(0.97)	1(0.24)			5(1.21)
Subtotal		11(2.67)	24(5.83)	17(4.13)	18(4.37)	5(1.21)	1(0.24)			84(20.39)
170	91	2(0.49)								2(0.49)
	94	3(0.73)	13(3.16)							16(3.88)
	97	1(0.24)	6(1.46)	22(5.34)	5(1.21)					34(8.25)
	100			2(0.49)	22(5.34)	5(1.21)				29(7.04)
	103				2(0.49)	17(4.13)	4(0.97)			23(5.58)
	106					1(0.24)	5(1.21)			6(1.46)
Subtotal		6(1.46)	19(4.61)	24(5.83)	29(7.04)	23(5.58)	9(2.18)			110(26.70)
175	94	1(0.24)	2(0.49)							3(0.73)
	97		4(0.97)	19(4.61)						23(5.58)
	100			3(0.73)	22(5.34)					25(6.07)
	103			1(0.24)	3(0.73)	22(5.34)				26(6.31)
	106					1(0.24)	17(4.13)	2(0.49)		20(4.85)
	109							7(1.70)	3(0.73)	10(2.43)
Subtotal		1(0.24)	6(1.46)	23(5.58)	25(6.07)	23(5.58)	17(4.13)	9(2.18)	3(0.73)	107(25.97)
180	97			7(1.7)						7(1.7)
	100			1(0.24)	18(4.37)					19(4.61)
	103				3(0.73)	10(2.43)				13(3.16)
	106					4(0.97)	16(3.88)	1(0.24)		21(5.10)
	109						4(0.97)	10(2.43)		14(3.40)
	112								6(1.46)	6(1.46)
Subtotal				8(1.94)	21(5.10)	14(3.40)	20(4.85)	11(2.67)	6(1.46)	80(19.42)
185	103					5(1.21)				5(1.6)
	109							7(1.7)		7(1.7)
	112							7(1.7)	1(0.24)	7(1.7)
	115								1(0.24)	1(0.3)
	121								2(0.49)	2(0.6)
Subtotal						5(1.21)		14(3.40)	4(0.97)	22(6.07)
Total		18(4.37)	49(11.90)	72(17.48)	93(22.57)	70(16.99)	47(11.41)	34(8.25)	13(3.16)	396(96.13)

*음영표시는 10개 이상의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이다.

*91-79-165(가슴둘레-허리둘레-키) 미만과 121-100-180(가슴둘레-허리둘레-키) 초과에 해당하는 12개의 호칭은 분석에는 포함되었으나 빈도가 매우 작아 표에 표기하지 않았다.

즉, 대부분의 호칭들이 특정 드롭치 체형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별 다양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정면 체형의 소비자들이 자신

의 체형에 적합한 실루엣을 선택할 기회가 적어져 재킷 맞춤새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2) 국민표준체위조사 자료와 재킷 치수 범위 비교

국민표준체위조사 자료를 가슴둘레, 허리둘레는 3cm, 키는 5cm 간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표 6> 업체에서 생산하는 재킷 호칭의 소비자 커버율은 27.9%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성 재킷의 치수 범위를 살펴보면 가슴둘레 85~121cm, 허리둘레 70~97cm, 키 160~185cm로 KS규격에서 제시한 가슴둘레 88~104cm, 허리둘레 68~92cm, 키 165~175cm 범위에 비해 모두 큰 쪽으로 치우쳤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슴둘레의 경우 신체치수 분포가 전혀 없는 큰 치수도 있었으며, 이런 경향은 키 180cm, 185cm 등에서 더욱 뚜렷하였다.

2. 재킷 여유량 분석

1) 재킷 부위별 여유량 분석

재킷 부위별 여유량을 살펴보면<표 7> 가장 여유량이 많은 부위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로 각각 20.8cm, 20.1cm였으며 엉덩이둘레는 그보다 적은 15.8cm였다. 부위별 여유량 차이는 재킷의 미적 목적과 활동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슴둘레의 여유량과 엉덩이둘레 여유량에 차이를 두어 재킷 실루엣을 조정함으로써 남성적 이상 체형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과 용이한 팔동작에 필요한 가슴둘레 여유량 확보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킷길이의 여유량은

<표 6> 기성 재킷의 치수 간격에 따른 국민표준체위조사 자료 빈도

(단위 : 명/%)

키	허리 가슴	치수													Total	
		64	67	70	73	76	79	82	85	88	91	94	97	100		
160	79	0.12				0.12										0.23
	82	0.12	0.12		0.35	0.35	0.35									1.29
	85			0.23	0.35	0.82	0.47	0.12								1.99
	88					0.12	0.70	0.47	0.35	0.12						1.75
	91					0.23	0.12	0.70	0.23		0.35					1.64
	94						0.12	0.35	0.58	0.23	0.23		0.12			1.64
	97								0.12	0.12	0.35					0.58
	100							0.12								0.12
	106							0.00				0.12	0.12			0.23
165	79	0.23		0.12	0.23			0.00								0.58
	82		0.23	0.47	0.23	0.12	0.00	0.12								1.17
	85		0.23	0.35	0.70	0.35	0.35	0.12	0.12		0.12					2.34
	88				0.47	1.29	1.64	0.70	1.17	0.35						5.61
	91					0.23	1.40	0.82	1.40	0.58	0.12					4.56
	94					0.23	0.47	0.70	1.05	0.70	0.12	0.58	0.12			3.97
	97							0.70	0.82	0.58	0.82	0.23				3.15
	100								0.12	0.12	0.35	0.12	0.35			1.17
	103											0.35	0.23		0.12	0.70
170	79	0.12	0.12	0.23								0.12				0.58
	82			1.29	0.47	0.47	0.23	0.00								2.45
	85	0.12	0.23	0.12	1.05	1.29	0.58	0.47								3.86
	88			0.23	0.82	2.57	1.17	0.58	0.58	0.23	0.12					6.31
	91			0.12	0.58	1.05	1.52	1.64	1.05	1.05	0.23					7.24
	94			0.12	0.23	0.47	0.47	1.29	1.87	1.87	0.58	0.23				7.13
	97						0.35	0.82	1.05	0.70	1.17	0.47				4.56
	100							0.12		0.58	1.64	0.23				2.57
	103								0.12		0.35	0.12	0.35			0.93
106								0.12							0.12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신체 치수에 해당하는 기성복 치수가 있는 범위

<표 6> 계속

키	허리		64	67	70	73	76	79	82	85	88	91	94	97	100	Total
	가슴	허리														
175	79				0.23											0.23
	82				0.12	0.12	0.23									0.47
	85				0.35	0.58	1.17	0.47	0.12							2.69
	88				0.00	0.47	1.40	0.93	0.93	0.12	0.12					3.97
	91				0.12		0.82	0.58	1.29	0.82	0.93		0.12			4.67
	94					0.35	0.12	0.58	0.82	0.70	1.05	0.23				3.86
	97					0.23		0.23	0.47	1.52	0.47	1.17	0.23			4.32
	100						0.12	0.12	0.12		0.58	0.35	0.23	0.23	0.12	1.87
	103								0.35		0.12	0.23		0.23		0.93
	106													0.12	0.12	0.23
180	79	0.23														0.23
	85				0.23		0.12		0.12							0.47
	88				0.12	0.23	0.35	0.12								0.82
	91					0.23	0.12	0.23	0.82	0.23						1.64
	94						0.12	0.12	0.35	0.35	0.23					1.17
	97				0.12				0.12	0.58	0.12	0.23	0.12	0.12		1.40
	100								0.12	0.35	0.12	0.12	0.12			0.82
	103								0.12	0.23				0.12		0.47
	106												0.23			0.23
	109															
185	85				0.12	0.12										0.23
	88				0.12											0.12
	94						0.12	0.23								0.35
	97								0.12							0.12
	103									0.23						0.23
	109															
Total		0.93	0.93	4.79	7.94	14.25	13.43	15.77	15.77	11.21	9.46	3.39	1.75	0.35	100.00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신체 치수에 해당하는 기성복 치수가 있는 범위

1.1cm로 실제 신체 치수를 그대로 반영한 부위였고 어깨와 뒤편은 각각 4.1cm 였다.

2) 기성 재킷과 맞춤 재킷의 여유량 비교 분석

맞춤 재킷과 기성 재킷의 부위별 여유량을 비교하면 <표 7> 어깨와 가슴둘레 및 소매길이의 여유량은 서로 유사하였으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뒤편 및 진동길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 기성 재킷의 여유량이 더 많았다. 맞춤 재킷의 제작 특성상 소비자들이 원하는 여유량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성 재킷의 여유량이 더 많은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특히,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과도한 여유량은 기성 재킷의 치수 체계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드롭치 체형과 달리 '허리가 굵은 체형(B)'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이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재킷 치수를 선택함에 따라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드롭치가 재킷의 드롭치보다 큰 체형들은 자연스럽게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서 나타난 기성 재킷과 맞춤 재킷의 여유량 차이는 맞춤 재킷에 비해 기성 재킷의 맞춤새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진동길이와 팔둘레의 여유량을 비교해 보면 맞춤 재킷은 기성 재킷에 비해 진동길이 여유량은 더 적으나 팔둘레 여유량은 더 많았다. 따라서 맞춤 재킷이 신체와 재킷 간의 진동길이 차가 작고 팔둘레가

<표 7> 기성 재킷과 맞춤 재킷의 부위별 여유량 (단위 : cm)

제작 방법 여유량	맞춤 재킷 (N=126)	기성 재킷			전체 평균 (N=493)
		전체 (N=367)	캐릭터 캐주얼 (N=188)	신사 정장 (N=179)	
가슴둘레	20.6	20.8	19.6	22.1	20.8
허리둘레	16.8	21.2	20.6	21.9	20.1
영덩이둘레	11.2	17.3	16.1	18.6	15.8
팔 둘레	11.7	8.5	8.5	8.5	9.3
어깨	4.2	4.1	4.1	4.2	4.1
뒤 품	3.1	4.5	4.6	4.3	4.1
재킷길이	0.1	1.5	1.4	1.6	1.1
진동길이	8.5	12.4	12.6	12.2	11.0
소매길이	4.7	4.4	4.5	4.2	4.4

*음영은 기성 재킷의 여유량이 더 많은 부위, 굵은 선은 맞춤 재킷의 여유량이 더 많은 부위

넓어 동작 시 보다 편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기성 재킷의 브랜드별 여유량 비교에서는 신사 정장 재킷의 경우가 캐릭터 캐주얼 재킷에 비해 여유량이 더 많았다. 이는 신사 정장 브랜드들이 20~60대에 걸쳐 폭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소비자들의 신체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실루엣이 포괄적인 반면 캐릭터 캐주얼은 주로 35세 이하의 특

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층의 신체 특성 및 선호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3) 드롭치에 의한 체형 구분에 따른 여유량 분석

기성 재킷과 맞춤 재킷의 여유량 비교에서 나타난 허리둘레와 영덩이둘레의 여유량 및 맞음새 문제점을 체형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KS규격의 드롭치 체형을 이용하여 재킷 부위별 여유량을 분석하였다(표 8). 맞춤 재킷의 경우는 허리둘레와 팔둘레에서 체형에 따라 유의차를 보였으며 배가 나온 체형으로 갈수록 여유량이 감소하였다. 즉, 허리둘레 여유량을 조정하여 재킷의 역삼각형 실루엣을 유지함으로써 체형적 결점을 보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성 재킷의 경우는 재킷길이, 진동길이 및 소매길이가 가슴둘레, 허리둘레, 팔둘레 및 어깨에서 체형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성 재킷에 국한하여 유의차를 보인 가슴둘레와 어깨, 재킷길이와 진동길이 및 소매길이는 기성복의 제한적 치수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각 부위별로 살펴보면 기성 재킷의 어깨 여유량은 ‘마른 체형(Y)’과 ‘배가 나온 체형(BB)’이 ‘보통 체형(A)’과 ‘허리가 굽은 체형(B)’보다, 즉 드롭치가 크거나 작은 체형이 표준 체형보다 많았다. 가슴둘레는

<표 8> 드롭치 체형에 따른 재킷 부위별 여유량

(단위 : cm)

부위	드롭치		22~28 (YY)		18~21.9 (Y)		14~17.9 (A)		10~13.9 (B)		6~9.9 (BB)		F-value	
	맞춤	기성	맞춤	기성	맞춤	기성	맞춤	기성	맞춤	기성	맞춤	기성	맞춤	기성
	N=5	N=9	N=34	N=25	N=35	N=65	N=30	N=122	N=22	N=146	N=126	N=367		
가슴둘레	19.9	15.5 (c)	20.3	15.9 (b)	20.5	18.1 (bc)	19.8	20.3 (a)	22.4	23.6 (a)	1.796	25.666***		
허리둘레	24.0 (A)	27.9 (a)	18.7 (B)	23.6 (ab)	17.6 (B)	22.8 (ab)	15.8 (B)	20.9 (b)	12.3 (C)	19.9 (c)	14.892***	8.651***		
영덩이둘레	8.2	18.5	10.9	17.2	11.3	16.6	12.4	16.7	10.8	18.1	1.525	1.666		
팔 둘레	16.1 (A)	9.9 (a)	13.4 (AB)	9.0 (ab)	12.8 (BC)	9.0 (ab)	9.9 (C)	8.0 (ab)	8.7 (C)	8.5 (b)	6.882***	2.740*		
어깨	5.1	4.7	4.2	3.1	4.1	3.8	4.1	3.7	4.3	4.8	0.900	3.609**		
등 품	3.4	5.0	3.6	3.4	3.1	4.7	2.7	4.2	2.9	4.8	1.314	2.221		
재킷길이	-0.1	2.0 (b)	0.3	0.5 (ab)	0.2	1.3 (ab)	-0.1	1.4 (a)	-0.1	1.8 (b)	0.822	3.080*		
진동길이	8.5	13.9	8.7	13.9	8.5	14.3	8.4	14.6	8.5	14.4	0.347	2.418*		
소매길이	4.1	6.6 (b)	4.0	2.7 (b)	4.0	4.2 (b)	3.4	4.2 (a)	3.2	4.8 (c)	1.362	5.893***		

*p<.05, **p<.01, ***p<.001

*알파벳은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인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으로 대문자는 맞춤 재킷, 소문자는 기성재킷으로 구분하였다.(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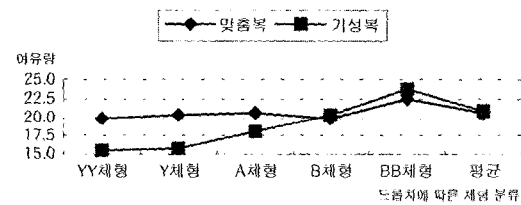
*ANOVA 분석은 기성재킷과 맞춤재킷 각각에 대한 체형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하였음

<표 8, 그림 1> 맞춤 재킷의 경우, '배가 나온 체형(BB)'을 제외하고는 체형에 상관없이 일정한 여유량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가슴둘레가 재킷 패턴 제도의 기준 부위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반면 기성 재킷의 경우는 드롭치 체형에 따라 여유량이 유의적으로 달라져 드롭치가 클수록, 즉 마른 체형으로 갈수록 가슴둘레의 여유량이 작아지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대부분의 기성 재킷이 '허리가 굵은 체형(B)'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드롭치가 큰 체형들은 자신의 체형에 적합한 재킷이 없기 때문에 가슴둘레 치수에 맞춰 재킷을 선택하면 허리둘레와 도련둘레에 과도한 여유량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너무 여유로운 실루엣이 형성되므로 가슴둘레 여유량을 줄여 타 부위의 여유량을 조정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배가 나온 체형(BB)'의 경우, 맞춤과 기성 재킷 모두 가슴둘레 여유량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가슴둘레 여유를 충분히 줌으로써 배둘레 또는 외포둘레로 인해 아래가 넓어지는 A형 실루엣을 피하고 정통 남자 재킷의 실루엣을 유지하기 위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허리둘레 여유량의 <표 8, 그림 2> 경우, 체형별로는 '허리가 굵은 체형(BB)'에서 여유량이 가장 적었고 '마른 체형(YY)'에서 가장 많아 가슴둘레와 마찬가지로 허리둘레에 포함되는 여유량을 조절하여 자신의 체형적 결점을 보완함을 알 수 있다. 맞춤 재킷과 기성 재킷은 체형에 따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체형에서 기성 재킷의 여유량이 더 많았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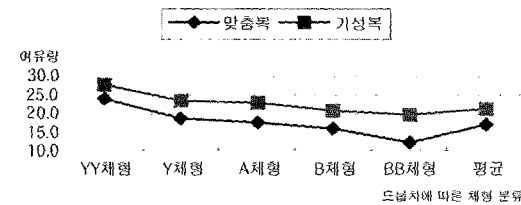
맞음새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엉덩이둘레는 <표 8, 그림 3> 대체로 여유량 편차가 크지 않아 모든 체형에서 유사한 여유량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맞춤 재킷과 기성 재킷간에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맞춤 재킷은 드롭치가 크거나 작은 체형에서 엉덩이둘레 여유량이 증가하였으나 기성 재킷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맞춤 재킷에서 '배가 나온 체형(BB)'과 '마른 체형(YY)'에서 여유량이 적어지는 경향은 표준체형으로의 가시적 구조(Visual-Construction)를 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기성 재킷의 경우는 일률적인 재킷 체형과 소비자 체형 간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드롭치 체형에 따라 여유량을 분석하면 맞춤 재킷의 경우, 가슴둘레는 제도의 기준 부위로 대부분의 체형에서 유사한 여유량이 포함되나 허리둘레는 배가 나온 체형으로 갈수록 여유량이 줄어들고 엉덩이둘레는 표준체형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은 여유량이 포함됨을 볼 때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여유량 조절을 통해 신체 단점을 극복하고 가시적 실루엣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성 재킷은 맞춤 재킷과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기성 재킷이 특정 체형에 근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른 체형(YY)'의 경우, 맞춤 재킷은 가슴둘레 여유량이 다른 체형과 유사하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여유량은 가장 적어 역삼각형 실루엣이 강조된 반면 기성 재킷에서는 가슴둘레 여유량이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은 가장 많았다. 따라서 기성 재킷에서 드롭치 체형에 따라 가슴둘레, 허리둘레 및 엉덩이둘레의 여유량 차이는 기성 재킷이 특정 체형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맞음새 불만족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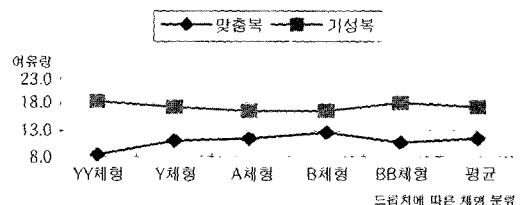
한편, 드롭치 체형별로 길이 부위의 여유량 차이를 분석하면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길이 부위의 여유량은 드롭치 체형과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림 1> 드롭치(가슴둘레-허리둘레) 구분에 따른 재킷의 가슴둘레 여유량



<그림 2> 드롭치(가슴둘레-허리둘레) 구분에 따른 재킷의 허리둘레 여유량



<그림 3> 드롭치(가슴둘레-허리둘레) 구분에 따른 재킷의 엉덩이둘레 여유량

4) 신장에 따른 여유량 분석

기성 재킷의 치수 맞음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재킷길이, 소매길이, 셔츠길이 및 바지길이의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김희영 1998; 안성원, 2001) 길이의 여유량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체 소비자를 기성 재킷의 키 호칭에 따라 5cm 단위로 구분하여 165~185cm까지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표 9>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키 호칭에 따라 유의차를 나타난 부위는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재킷길이 및 진동길이였다. 대체로 키 호칭이 증가함에 따라 가슴둘레 여유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엉덩이둘레 여유량은 감소하였다. 재킷길이와 진동길이는 키 호칭이 증가할수록 여유량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키 호칭 165, 170, 175와 180 그리고 185의 4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소매길이는 통계분석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재킷길이와 같이 키 호칭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여유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 연령에 따른 여유량 분석

재킷 부위별 여유량을 연령별로 분석하면<표 10> 대부분 부위에서 35~59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더 많은 여유량을 지니고 있었으며 어깨, 가슴둘레, 위팔둘레는 35~59세 집단의 여유량이, '진동길이'와 '소매길이'는 25~34세 집단의 여유량이 유의적으로 더 많았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남성 정장 재킷의 부위별 여유량을 분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맞음새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과 여유량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성 재킷 소비자와 맞춤 재킷 소비자 493명을 조사하였다.

기성 재킷 치수 체계 조사 결과 실질적인 커버율은 27.9%에 불과하였으며 75.0%가 '허리가 굵은 체형'에 집중되어 있고 키-가슴둘레의 비례가 모든 치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다양한 체형의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재킷을 선택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야기하며 동시에 업체에서 의도한 여유량과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여유량이 달라짐에 따라 맞음새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성 재킷의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브랜드별로 타겟 체형을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재킷 부위별 여유량을 살펴보면 어깨와 가슴둘레 및 소매길이 등 재킷 선택 시 기준이 되는 부위의 여유량은 맞춤 재킷과 기성 재킷이 유사하였으나 기성

<표 10> 연령에 따른 재킷 부위별 여유량

여유량	연령	35세 미만	35세 이상	t-value
가슴둘레		20.0	21.3	8.231**
허리둘레		20.5	19.8	2.279
엉덩이둘레		15.5	16.0	1.189
위팔둘레		8.9	9.6	5.030*
어깨		3.7	4.5	10.076**
등 품		4.2	4.1	0.223
재킷길이		1.1	1.1	0.007
진동길이		11.6	10.6	15.750***
소매길이		5.5	5.0	6.205*

*p<.05, **p<.01, ***p<.001

<표 9> 키 호칭에 따른 재킷 부위별 여유량

재킷부위	키 호칭	키 호칭					F-value
		165 (N=28)	170 (N=138)	175 (N=223)	180 (N=80)	185 (N=24)	
가슴둘레		19.5 A	21.3 AB	20.2 AB	21.9 B	20.9 AB	2.585*
허리둘레		18.6	20.2	19.8	21.4	19.6	1.868
엉덩이둘레		15.3 B	16.9 B	15.5 B	15.8 B	12.1 A	4.329**
팔둘레		9.2	8.9	9.6	9.0	10.2	1.430
어깨		4.3	4.3	4.1	3.7	4.6	0.892
등 품		4.1	4.1	4.2	4.0	4.2	0.119
재킷길이		2.4 D	1.7 C	0.9 B	0.7 B	-0.2 A	12.368***
진동길이		13.5 B	13.4 B	13.0 B	12.9 B	11.3 A	2.890*
소매길이		4.5	4.5	4.1	4.0	3.4	1.494

알파벳은 Duncan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인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A<B<C)

*p<.05, **p<.01, ***p<.001

재킷의 경우는 팔둘레 여유량이 부족하였고 일률적인 재킷 체형으로 인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 과도한 여유량이 포함되어 맞춤 재킷에 비해 가시적 실루엣 조정 효과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체형별 기성 재킷의 여유량 분포 경향은 맞춤 재킷과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기성 재킷의 맞춤새 향상을 위해서는 어깨와 가슴둘레의 여유량 뿐 아니라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브랜드별로 지향하는 체형 선정 및 각 체형에 따른 원형개발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연령에 따른 재킷 부위별 여유량을 분석하면 대체로 35~59세 연령층이 더 많은 여유량을 지니고 있었으나 진동길이와 소매길이는 25~34세 집단의 여유량이 유의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타겟 설정에 따른 재킷 원형 개발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령과 여유량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기성 재킷에 대한 소비자들의 맞춤새 불만족은 기성 재킷의 치수 체계가 특정 드롭치 체형을 기준으로 하여 키-가슴둘레의 비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브랜드로 지향하는 타겟 연령 및 체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치수 체계를 설정하고 있어 브랜드별 특성이 치수 체계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다양한 기호 및 체형의 소비자들의 맞춤새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기성복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대량 개별화(Mass-Customization)와 같은 체계를 도입한 업체들은 유사한 치수 체계의 세분화 보다는 브랜드에 따라 체형과 연령을 뚜렷히 차별화하여 치수 체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비자들의 여유량과 맞춤새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를 파악하여 치수 체계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맞춤새 만족도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여유량 현황에 대한 파악 이외에 여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곽연철. (2001). *남성복 패션 워크샵*: 한국의류학회 의복구성분과 연구회.
- 국립기술품질원. (1998). *국민표준체위 조사결과에 따른 체형분류 연구*. 국립기술품질원.
- 김구자. (1991). *남성복의 치수 규격을 위한 체형 분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구자, 정명숙. (2001). 신사복의 패턴 그레이딩을 위한 체형 분류 -44세에서 54세 사이의 한국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6), 1069-1078.
- 김현아. (1999). *남성장장의 치수규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영. (1998). 노년 남성의 의복 착용 실태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2(2), 193-202.
- 남윤자, 이형숙. (1995). *남성복 구성*. 서울 : 경춘사.
- 박찬욱. (1996).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서울 : 연암사.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1999). *한국산업규격 남성복의 치수 KS K 0050*.
- 심규남, 서정권, 이원자. (2000). 3차원 계측장치를 이용한 길원형의 여유량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2(3), 239-245.
- 안성원. (2001). *성인 남성의 신체 만족도와 기성복 사이즈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신정. (1991). *의복 구성을 위한 20대 남성의 체형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재은. (2000). *남성의 체형별 재킷 길 원형 (block)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中澤念-나미향 역. (1999). *의복과 체형-인체구조, 미적요소, 패턴*. 서울 : 예학사.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2). *2002년 상반기 의류소비 실태조사 보고서*, 2002년 10월.
- Ashdown, Susan P. & DeLong, Marilyn. (1995). Perception testing of apparel ease variation. *Applied Ergonomics*, 26(1), 47-54.
- Hogge, V. E., Baer, M. & Kang-Park J. (1988). Clothing for elderly and non-elderly men: A comparison of preferences, perceived availability and fitting problem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4), 47-53.
- Workman, Jane E. (1991). Body measurement specifications for fit models as a factor in clothing size variation.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0(1), 31-s36.
- Workman, Jane E. & Lentz, Elizabeth S. (2000). Measurement specifications for manufacturer's prototype bodie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8(4), 251-259.
- 곽연신. (2002). *20대 남성의 상반신 측면형태에 따른 치수 변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